



이슈 | '가습기 살균제 참사' SK케미칼·애경산업·이마트 관계자들 1심 무죄 선고

“가습기 살균제, 폐질환 인과관계 입증 어렵다”

홍지호·안용찬 대표 등 13명 무죄 재판부 “CMIT 등 위험성 증명 부족” 피해자 측, 수궁할 수 없다며 울분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의 전직 임직원 등 관계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12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 13명의 선고 공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가 2002~2011년 제조·판매한 '가습기메이트'는 옥시의 '쌍쌍 가습기당면' 다음으로 많은 피해자를 낸 제품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앞서 유죄 확정을 받은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 원료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및 염화에톡시에



가습기 살균제를 유류·판매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애경 전 임직원들이 12일 1심서 무죄를 선고받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 무죄를 선고받고 법원을 나서는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와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왼쪽 사진부터). 뉴스스

틸구아니딘(PGH)과 이 사건에서 사용된 클로로메틸아소티아졸리논(CMIT) 및 메틸아소티아졸리논(MIT)의 구조와 성분이 분명히 다르다고 판단했다.

CMIT 및 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의 위험성을 확인하기 위해 동물 실험과 역학 조사 등을 진행했으나 폐질환과 천식에 영향을 줬다고 결론을 내린 보고서가

없었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재판부는 “어마어마한 피해가 발생한 사회적 참사였고 이를 바라보는 심정은 안타깝고 착잡하기 그지없다”며 “추가 연구결과가 나오면 역사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 나온 증거를 바탕으로 형사사범의 근본적 원칙 범위 내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날 선고 뒤 피해자 측은 판결에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해자 측은 “사망에 이르거나 지금까지 치료를 받으면서 투병 중인 피해자들은 무슨 제품을 어떻게 썼다는 말이나”며 “이 제품을 써서 죽어간 사람들이 어마어마함에도 어떻게 무죄라고 할 수 있느냐”고 울분을 토했다. 정정욱 기자 jiy@donga.com



한국아쿠르트, 전 공장 '스마트팩토리' 구축 CJ올리브네트웍스와 협업...시스템 고도화 계획

한국아쿠르트가 자사 전 공장(평택, 천안, 논산·사진)에 '스마트팩토리·스마트HACCP'을 구축한다. '스마트HACCP'는 식품 제조공장에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해 주요 공정의 모니터링을 자동화하고 데이터 수집, 관리, 분석기록일지 등을 디지털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아쿠르트는 지난해 7월, 국내 발효유 업계 최초로 전 공장 스마트 HACCP 인증을 완료했다. '스마트팩토리·스마트HACCP'는 이에 대한 후속 공사다. 총 6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전체 예산의 50%를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지원한다.

한국아쿠르트는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3개 공장 데이터를 디지털화하여 통합 관리한다. 공장상 데이터는 센서와 IoT를 통해 자동 수집되며 수기로 기록하던 문서는 전자문서화를 통해 효율적으로 관리된다. 자재관리 바코드 시스템을 통해 원자재 입고부터 제품 출고까지 실시간 관리가 가능해진다.

한국아쿠르트는 이를 통해 '스마트팩토리·스마트HACCP' 기반 생산 품질 향상, 사고 예방, 생산성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시스템 구축은 CJ올리브네트웍스가 진행한다. 향후 실시간 데이터베이스 도입과 AI,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적용해 시스템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김길영 한국아쿠르트 품질안전팀 팀장은 “중소기업벤처부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스마트 공장 구축지원 사업을 통해 선진 생산관리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어 기쁘다”며 “CJ올리브네트웍스와 협업을 계기로 자사 제품 안전시스템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금호타이어, 중국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수상



금호타이어(대표 전대진)의 중국 프리미엄 제품인 '마제스티9 SOLUS TA93'(사진)이 최근 중국 샤먼에서 열린 '2020 중국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에서 본상(Winner)을 수상했다.

'중국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는 독일 레드닷(Red Dot)과 샤먼방송국 소속 샤먼문화방송매체그룹이 공동 창설한 글로벌 디자인상으로 2015년 처음 개최했다. 중국 국내의 유수의 기업들이 참여해 3%만이 본상을 수상할 정도로 경쟁이 치열하다. 금호타이어의 '마제스티9 SOLUS TA93'은 올해 6000개 이상의 출품 경쟁 속에서 타이어 업계 중 유일하게 본상을 수상했다. 금호타이어 '마제스티9 SOLUS TA93'은 샤먼공항에 위치한 레드닷 디자인 뮤지엄에서 내년 4월까지 전시된다. 원성열 기자

구호플러스 '프리 스프링 컬렉션' 출시



삼성물산 패션부문의 구호플러스가 2021년 봄 시즌을 맞아 '프리 스프링 컬렉션'(사진)을 선보였다. 경량 울링 재킷, 크롭을 재킷, 페이크 레더 재킷, 트윈드 재킷, 스웨트셔츠, 니트 카디건, 데님 팬츠 등으로 구성했다. 색상은 옅은 회색, 스카이 블루, 아이보리를 중심으로 했다. 올 봄 캐주얼, 포멀, 원마일 웨어 등 여러 상황에서 실용적으로 믹스 앤 매치할 수 있는 아이템이 주목받고 있는 것에 착안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정정욱 기자

현대차 아반떼 '2021 북미 올해의 차' 수상 "혁신적 디자인·첨단 기술 등 모든 면서 우수"

닛산 제치고 승용차 부문 최종 선정 지난해 미시장서 10만 대 이상 판매

현대자동차 준중형 세단 아반떼가 글로벌 자동차 시장 최대 격전지인 북미 시장에서 승용 부문 최고의 차로 인정받았다.

현대차는 11일(현지시간) 열린 '2021 북미 올해의 차(NACTOY, The North American Car, Truck and Utility Vehicle of the Year)' 온라인 시상식에서 현대 아반떼(현지명 엘란트라)가 '북미 올해의 차' 승용차 부문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2021 북미 올해의 차' 승용차 부문에서는 현대차 아반떼, 제네시스 G80, 닛산 센트라가 최종 후보에 올랐으며, 치열한 접전 끝에 아반떼가 최종 선정됐다. 북미 올해의 차 주최 측은 아반떼에 대해 "파라메트릭

다이나믹스 테마를 적용한 혁신적인 디자인, 디지털 키와 같은 첨단 편의사양, 연비 등을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다.

현대차 아반떼가 올해의 차(2012)를 수상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북미 올해의 차 시상식이 제정된 1994년 이후로 올해의 차를 한 번 이상 수상한 차량은 쉐보레 폴벳과 혼다 시빅 두 대뿐이다. 이로써 아반떼는 세계에서 가장 인정받는 준중형차 반열에 오르게 됐다.

한국 자동차의 북미 올해의 차 수상은 이번이 6번째다. 2009년 현대 제네시스 세단(BH), 2012년 현대 아반떼, 2019년 제네시스 G70, 현대 코나, 2020년 기아 텔루라이드가 선정된 바 있다. 올해는 2020년에 이어 한국 자동차가 북미 올해의 차 최종 후보를 가장 많이 배출한 해이기도 하다. 승용 부문 아반떼와 G80를 포함한 SUV



11일(현지시간) 열린 '2021 북미 올해의 차(NACTOY)' 온라인 시상식에서 승용차 부문에 선정된 현대차의 준중형 세단 아반떼. 사진제공 | 현대자동차

부문 GV80가 최종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총 6대의 승용 및 SUV 부문 최종 후보 중에서 무려 절반을 한국 자동차(현대차)가 차지하며 브랜드의 높은 위상을 과시했다.

현대자동차 관계자는 "아반떼는 2020년 한 해 동안 미국 시장에서 10만 대 이상 판매되며 지속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이번 수상을 계기로 미국 승용차 판매를 견인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현대차는 올해 약 21.2km/l 이상의 복합연비(미국EPA 예상 연비 평가)를 갖춘 아반떼 하이브리드 모델과 아반떼 N, 아반떼 N 라인 등 고성능 모델을 추가해 북미 시장 공략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상소문폰 '롤러블', 상반기 출시 예상...LG스마트폰 구할까

CES서 영상 공개...새로운 폼팩터에 관심 집중

새로운 폼팩터(하드웨어 형태)폰 '롤러블'이 계속된 적자로 위기에 내몰린 LG전자의 휴대전화 사업 구원 투수로 나선다.

LG전자는 11일(미국 현지시간) CES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롤러블 스마트폰 영상을 공개했다. 화면을 말았다 펼칠 수 있어 일명 '상소문폰'으로 불려온 롤러블의 실물과 동작이 영상으로 등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LG전자가 공개한 영상에는 사용하던 스마트폰 화면이 태블릿만큼 커졌다가 다시 작아지는 모습이 나온다. 접으면 6.8인치, 펼치면 7.4인치로 알려졌다. 업계는 LG전자가 3월에 제품 실물을 공개하고 상반기 내 출시할 것으로 보고 있다.

LG전자의 새 스마트폰이 관심을 모으는 또 하나의 이유는 LG전자의 휴대전화 사업 실적 때문이다. LG전자는 최근 잠정실적 발표를 통해 지난해 4분기 매출 18조7826억 원, 영업이익 6470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매출은 분기 사상 최대, 영업이익은 역대 4분기 가운데 최대다. 이런 호실적을 바탕으로 연간 영업이익이 사상 처음 3조 원을 돌파했다.

하지만 휴대전화 부문에선 웃지 못했다. 부분별 잠정실적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증권가 등은 LG전자의 휴대전화 사업을 담당하는 MC사업본부가 지난해 4분기 2000억 원 가량의 영업손실을 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듯 23분기 연속 적자다. 지난해 10월 내놓은 전략 스마트폰 '윙'이 큰 반응을 얻지 못한 결과로 분석된다.



LG전자가 11일(현지시간) CES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최초로 실물과 동작 모습을 공개한 롤러블 스마트폰. 상반기 내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사진제공 | LG전자

윙에 이은 두 번째 '익스플로러 프로젝트' 롤러블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업계는 롤러블의 경우 윙과 달리 폴더블폰보다 한 단계 더 진화한 기술을 적용한 제품으로, 소비자의 큰 관심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